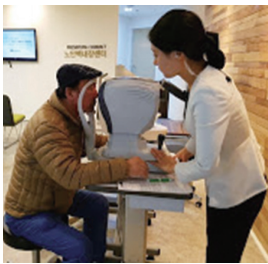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회원 계속 늘어나



사우회가 회원 복지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한층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7월 20일 박종진(편제) 회원부부가 첫 번째로 수술비 지원 혜택을 받은 이후 11월 10일까지 76명(회원 배우자 10명 포함)의 회원들이 백내장 진단비나 최고 36만원의 수술비를 지원 받았다. 무더위로 인해 9월까지 정체상태였으나 10월에 접어들면서 수술 받는 회원이 급격히 늘어나 11월 10일 현재 수술비나 진료비를 지원받은 회원은 모두 76

명에 이르렀으며, 사우회가 회원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모두 916만여 원에 달했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수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사무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당초 금년 말까지로 예정했던 수술비 지원 계획을 내년까지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내장 진료와 수술비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사무처로 문의하거나 GS안과(강남역 1번 출구 미진 플라자 8층)에 직접 예약(박유나 팀장 010-8725-3334)해 검진을 받은 뒤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내려질 경우, 수술을 받고 사무처에 연락하면 사우회는 최대 36만원의 수술비를 회원에게 지원하게 된다.

가을철 낚시대회, 김세중 회원 우승

2016년 가을철 낚시대회가 9월 28일 오전 6시 경기도 김포에서 열렸다. 25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김포시 봉성리 낚시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김세중(관리)회원이 19.5cm의 붕어를 낚아

우승을 차지했다. 2등은 17.5cm의 붕어를 낚은 강정수(관리)회원, 3등은 송재선(업무)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행운상은 31cm의 잉어를 낚은 김삼량(회원)이 차지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참석한 회원들은 사우회가 제공하는 오찬을 끝으로 2016년 낚시의 아쉬움을 달랬다.



송년의 밤, 12월 15일 6시 마포 가든호텔에서

2016년 사우회 송년의 밤이 12월 15일(목) 오후 6시 서울 마포에 있는 가든호텔에서 열린다. 사우회와 MBC는 올해 들어 방송 주변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송년 모임을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음료 비용은 법에서 허용하는 ‘1인

당 3만원 이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경품 추첨행사와 여흥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따라서 사우회원들로부터 송년회비도 걷지 않기로 했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간소한 송년회가 불가피해졌다”면서 “회원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을 등산대회, 북한산 둘레길에서

2016년 가을철 등산대회가 10월 19일 북한산 둘레길 1, 2구간에서 열렸다. 회원 81명이 참가한 이날 산행은 오전 10시 20분부터 2시간 정도 걸렸으며, 이 준 열사 묘소를 비롯해 광복군 합동묘소, 독립유공자 묘역, 국립 4.19묘지 일대를 거쳐 솔밭근린공원까지 약 4.5km의 구간을 산행하면서 가을산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날 산행에서 안호선(관리 86세) 회원이 최연장자로 노익장을 과시했으며, 안영순(관리) 회원은 충

북 음성에서 올라왔고, 강복주(대전) 회원이 유일하게 여성회원으로 참가했다.

쇄골 부상에도 불구하고 김홍기(보도)회원은 회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산행을 끝까지 함께 했다. 한편, 해마다 산행에 참석했던 최영성(편제) 회원이 전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져 회원들 모두가 안타까워했다.

회원들은 산행 후 거북이네 집에서 두부전골, 파전, 도토리묵 등을 안주로 술잔을 나누는 뒤풀이를 가졌다.



청주MBC와 충주MBC가
10월 1일 **MBC 충북**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MBC 충북

주최 **MBC 충북** | 티켓 문의처 **MBC 충북** 1577-9970 | 예매처 **INTERPARK** interpark.com 1544-1555 **YES24.COM** yes24.com 1544-6399

MBC 충북 출범 기념

복면가왕
미스터라 콘서트

2016. 11. 19. (토) 오후 7시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

Special Guest **인피니트**

MC **김성주**

CAST · 하면된다 백수탈출
· 감성보컬 귀뚜라미
· 자체검열 모자이크
· 아임 유어 파더 외

추계 골프대회, 고장석 회원 우승



2016년 추계 골프대회가 10월 11일 32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인천 에머슨 골프장에서 열렸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 고장석(편제) 회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이명수(춘천) 회원, 행운상은 오수천(관리), 니어리스트는 양윤모(보도) 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김수량 전 회장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감투상을 차

지했다. 이연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회원들의 도움으로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더 좋은 대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안재기 골프동호회장은 “대회장소가 너무 멀어 불편한 점이 많다”면서 “회장단이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계 바둑대회, 최동윤 회원과 김영균 회원 우승

2016년도 추계 MBC사우회장배 친선 바둑대회가 11월 3일 오전 10시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16명이 참가한 A조(4급 이상) 우승은 최동윤(관리) 이사가 차지했는데 결승전에서 이유호(편제) 회원과 열띤 공방전 끝에 1집 차로 이겨 관전자들 손에 땀을 쥐게 했다. 23명이 참가한 B조에서는 김영균(관리) 회원이 우승을, 이한익(기술) 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박웅곤(관리) 회원은 대국할 때 익혀두면 좋을 경구들을 정리해 이를 「바둑격언집」이라는 편람으로 만들어 참가회원들에게 나눠줘 박수를 받았다.



내년부터 회비 조정 시행

사우회는 내년부터 각종 회비를 인상·조정하여 시행한다. 지난 5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정된 회비 내역을 보

면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50만원, 입회비 5만원이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지난 5월부터 2017년도분 연회비를 3

만원씩 받고 있다. 5월 이전에 2017년도 회비를 미리 낸 경우, 차액 부분을 추가로 받지는 않는다.

태평양 큰 물 기슭에서



김 용 현 (미주)

태평양 건너 한반도에서는 벌써 몇 달째 참수작전이니, 서울 불바다니 하는 섬뜩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그 날도 바닷가 산책길에 나섰던 길이었는데 우연히 입안에서 맴도는 노래가 있었다. 전쟁 직후 부르던 학도호국단가다. ‘태평양 큰물 기슭 대륙 동녘에/ 우뚝 솟은 백두산 민족의 정기/화려한 금수강산 이루었으니/ 하늘이 주신 나라 지켜 나가세 --

학도호국단은 전쟁 시기에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민족의식을 갖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지속되다가 4.19혁명이 일어나던 해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 시절 단체 훈련을 받은 학생들의 마음 속에 아직도 ‘우리들은 삼천

만 민족의 태양/ 피 끓는 호국단 학도호국단’ 이 자리 잡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태평양 기슭에서 6천마일 저쪽에 있는 고향을 쳐다본다. 그 땅에 언제나 진정한 봄이 오려는가, 언제쯤이나 분단을 끝내고 남과 북이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인가. 태평양은 본시 평화의 바다였다.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험난한 마젤란 해협을 통과한 뒤에 만난 잔잔한 바다에 감동해서 지은 이름이 바로 ‘퍼시픽 오션’ ‘평화의 바다’였다. 태평양 연안도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다보면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 태평양의 매력에 흠뻑 빠진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바다 태평양의 한 복판에는 강대국들의 욕망이 끝없이 출렁거리 곳곳에 군사기지를 세워 놓았거나 새로운 군사기지를 탐내며 영토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 사이에 끼어 있어 태평양 바다 속에 흘린 우리 민족의 서러움과 이별의 눈물은 얼마나 많았던가. 태평양 전쟁에 바다 건너

끌려간 사람들과 남은 이들의 통한, 113년 전 하와이 농장으로 떠난 가난한 우리 선조들이 겪은 그 모진 수모, 자기의 뜻이기는 하였으나 잘 살아 보겠다고 태평양을 건너온 이민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

미국에 이민 온 그 다음해, 먼저 와 있던 친구가 샌 페드로에 있는 ‘우정의 종각’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헤어진 가족이 그림거나 한국에 돌아가고 싶을 때면 울면서 크게 소리 지르러 가는 곳이 바로 그 아래 바닷가라고. 이민자들은 새벽녘에 걸려오는 전화 소리에 노이로제가 된다. 고향에 계신 노부모님께 보고가 생기지 않았나하는 걱정 때문이다. 나도 20년을 그렇게 새벽마다 마음 졸이다가 16년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지금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바로 그 샌 페드로 항구 근처의 묘지에 누워 계신다. 샌 페드로에서 서쪽으로 2마일 정도 나가 랜초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오션 트레일에 들어서면 멀리서 몰아오는 해풍이 가슴을 쓸어내린다. 남가주 유수의 부

자 동네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도널드 트럼프가 만든 골프 코스가 있고, 그 옆으로 해안을 따라 길게 뻗어 있는 이 오션 트레일은 길이 깨끗하고 경관도 빼어난 곳이다. 한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 아래 펼쳐진 바다를 쳐다 보고 다른 쪽으로는 각종 선인장들이 어울린 풀밭을 헤치며 걷다 보면 1시간 코스가 단숨에 지나가 버린다. 4개의 하이킹 트레일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면 자갈밭을 거닐 수도 있고 언덕 위 잔디밭에 올라와 피크닉 테이블에서 석양을 보며 음식을 즐기기도 한다. 철썩, 철썩, 다시 파도가 절벽을 때리고 지나간다. 깜짝 놀란 마음에 전쟁 이야기가 가시지 않고 있는 고향의 형제들과 친구들의 안부를 물어 본다.

‘괜찮지?’ 대답은 언제나 ‘여기는 아무 일 없어, 근데 LA쪽에 산불이 났다면서?’ ‘그래 여기도 아무 일 없어’.

모쪼록 여기나 저기나 아무 일 없어야 하는데..

비가 내리려나, 태평양 기슭에 오늘 바람이 세차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채현(보도)

9월 13일(화)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10년 전 심장병 수술을 받고 투병하다 2년 전 전립선암이 발견돼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1973년 9월 카메라 기자로 입사, 영상담당 부국장 등을 역임하고 1998년 명예퇴했다.



이운하(업무)

9월 29일 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4세. 지난 6월 간암 진단을 받고 최근 담도암까지 발견돼 치료해 왔다. 1972년 입사하여 광고 업무에 종사하다가 1974년 한국연합광고로 자리를 옮겼다.



김무길(업무)

9월 13일 지병으로 별세. 향년 75세. 1970년 한국연합광고에 입사해 광고 영업과 인연을 맺고, 1972년에는 문화방송 경향신문으로 옮겨 대구지사 영업부에서 근무했으나, 1980년 언론통폐합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로 이적했다.



최영성(편제)

10월 18일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1969년 영상미술국에 입사해 세트 제작 분야에서 근무하다 1998년 명예 퇴직했다. 최근까지 등산동호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우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경·조사

■ 팔순 ■

신면식(기술)12/20 안흥엽(전주)12/28 심재영(편제)12/30 표재순(편제)12/30
 황진환(편제)01/02 노영일(보도)01/04 이성권(미주)01/07 최정식(기술)01/12
 임국희(ANN)01/17 장영달(대구)01/18 조강래(업무)01/19 김창욱(관리)01/23
 김병덕(편제)01/27 오남렬(보도)01/30

■ 고희 ■

정판식(부산)12/30

■ 회갑 ■

박성희(관리)12/08 이병윤(편제)12/13 손규현(관리)12/15 홍성추(기술)12/24
 최정순(관리)12/25 송승중(편제)12/30 이은규(편제)12/30 신선희(기술)01/02
 박승규(보도)01/04 이덕환(편제)01/12 윤효식(관리)01/19 권영화(기술)01/20
 박임실(기술)01/20

■ 결혼 ■

윤 진(기술)아들09/03 구본학(보도)딸09/04 이기호(편제)아들09/16
 김흥기(편제)차녀09/24 김수량(기술)장남09/25 정진민(관리)장남09/25
 최신영(업무)장남10/01 권혁준(편제)딸 10/01 이종숙(관리)차녀10/08
 김종관(업무)장녀10/15 이상길(관리)장남10/16 마병두(편제)막내10/16
 육수길(관리)장남10/30 조규보(관리)장남10/30 김택곤(보도)장녀10/30
 정판식(부산) 딸 10/30 박삼열(관리)장남11/12 심준보(업무)아들11/17
 정성만(보도)차남11/20 박중규(관리)막내11/26 이석일(보도)차남11/26
 박신서(편제) 딸 12/03

■ 부음 ■

윤권중(기술)부친상09/02 김대관(관리)장모상09/06 박광성(업무)모친상9/22
 민흥식(기술)상배 10/06 주광순(관리)부친상10/11 안남례(관리)모친상10/11
 이재훈(기술)장모상10/18 류재영(편제)모친상10/23 오준상(기술)장모10/26
 임국희(ANN)상배 10/26 김동명(편제)차녀상10/31 조석영(관리)모친상11/6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김관식(관리)	010-5384-0080	서대문구 성산로 7안길
김동명(편제)	010-7125-0337	경기 파주시 미래로 562
민현기(편제)	010-8887-7635	양천구 목동서로 236
박완주(보도)	010-5338-3254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박종덕(편제)	010-3158-1342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02번길
이우호(보도)	010-8786-6418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15-5
정관웅(보도)	010-3778-0156	강남구 영동대로 210
정영철(관리)	010-7110-1905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4
정중희(기술)	010-9199-5671	구로구 고척로 49
홍수선(보도)	010-5249-9311	서초구 사임당로 137

■ 평생회비 ■

정영철(관리)09/22 이우호(보도)10/11 홍수선(보도)10/12
 박종덕(편제)10/12 정관웅(보도)10/13 정중희(기술)10/18
 이석희(기술)10/20 김동명(편제)10/24 김관식(관리)11/02 민현기(편제)11/03

■ 연회비 ■

9월 : 김귀현('16) 김신명('18~'22) 심상수('16~'17) 윤상준('18) 이영하('16~'20)
 故이윤하('15) 이효일('17, 80세 납부 끝) 장효상('16, 80세 납부 끝)

진수웅('16) 하민웅('16) 홍종선('15~'16, 80세 납부 끝)

10월 : 강의원('16, 80세 납부 끝) 경진근('13~'16) 금기우('16~'18)
 김규홍('14~'16) 김영재('16, 80세 납부 끝) 김일중('13~'17)
 김평호('05~'16) 마병두('14~'16) 문성수('17) 박문식('16) 신명현('16)
 원신애('02~'16) 정태모('15~'18) 황진욱('16)

11월 : 고영석('15~'16) 김진호('15~'16) 박완주('16) 이상근('17~'19) 이양길('16)

전화/주소 변경

편제 : 백중석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82번길 17
 변영우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33
 신상용 010-9798-7713
 오문환 010-5296-4312 서초구 방배동 856-19
 이걸범 광명시 금당로 13
 이광열 010-5594-1534
 이동섭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 70
 이은실 양천구 목동동로 130
 최우철 서초구 잠원로 8길 35

보도 : 김경중 강원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10
 김도원 군포시 변영로 550번길 5
 김정명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44번길 8
 김창식 성동구 왕십리로 280
 오효진 세종시 도움3로 160
 전재철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27번길 55
 정병운 010-8915-2396
 최준식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기술 : 박진석 송파구 백제고분로 34길 18-18
 양경운 서초구 잠원로 8길 35
 전우성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1길 20-12
 정대식 은평구 증산로 3길 5-21

업무 : 김대수 강남구 선릉로 221
 송세원 동작구 동작대로 39길 22
 이화욱 010-3217-5364

관리 : 고영석 영등포구 경인로 77길 19
 김삼량 강북구 삼양로 99길 10
 김은혜 강서구 방배대로 6바길 11-20
 김일중 010-7749-4251
 류원종 하남시 위례중양로 215
 박중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9
 오양수 010-2276-2683
 원신애 010-5932-3174 고양시 덕양구 서정로 19
 유조동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2번길 18
 이기섭 동작구 대방로 23길
 이에나 김포시 김포대로 926번길 46
 이하결 경기 파주시 운정3길 15
 임진섭 김포시 김포한강 8로 365
 장한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 118-30
 정경태 강서구 수명로 2길 105
 조일동 세종시 달빛로 211
 전주 : 권황택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동/호/회/소/식

문기회 새 회장에 정홍보 회원

문화방송기자회(문기회)는 10월 21일 (금) 광화문에 있는 가온 부페식당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제9대 회장에 정홍보 회원을 선출했다. 정 신임 회장

은 1981년 기자 공채 15기로 입사했으며 파리특파원, 정치부장, 보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춘천MBC 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회장에는 배대윤(강원대 초빙교수), 정철영(전 보도본부 영상에디터)회

원, 총무에는 홍수선(전 논설위원)회원이 선임됐다. 문기회는 문화방송 기자 출신 16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매달 세 번째 금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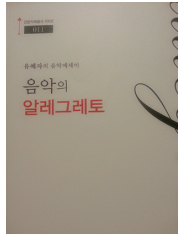
인사동클럽 오찬 모임

라디오PD들의 모임인 인사동클럽(회장 장명호)은 10월 5일 프레스센터 엠바고룸에서 오찬 모임을 가졌다. 16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김진희 회원의 8순을 축하하는 뜻으로 마련됐다. 또한 12월 5일 송년모임도 같은 장소에서 가질 예정이다.

회/원/동/정



유혜자(편제) 악
에세이집'으로, 그
동안 출간한 8권의
수필집을 포함, 모
두 13권의 저서를
갖게 됐다.



지난 9월 '음악의 알
레그레토'를 출간했
다. 이 책은 유 회원이
집필한 다섯 번째 '음

를 주제로 특강을 주관했다. 김 회원
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
쳐 '한국사 쟁점 특강' 행사를 이미 가
진 바 있다.



박노홍(보도)

9월 29일 한국방송광
고진흥공사(KOBACO)
의 비상임이사로 선임
됐다. 임기는 2018년
9월까지 2년이다.

미공원에 있는 해군첩보부대 현충탑
을 참배했다. 또한 철기 이범석 장군
기념사업회 감사인 유 회원은 11월8
일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된 해군 제8
호 잠수함 「이범석 호」 진수식에 국
무총리, 기념사업회 임원, 주한 외교
무관 등과 함께 참석했다.



주철환(편제)

9월 1일, 서울시가 출
연하여 2005년에 설립
한 서울문화재단의 대
표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 이로써
주 회원은 이화여대, 아주대 교수와
MBC, OBS, Jtbc 등 도합 7번째 직장
을 갖는 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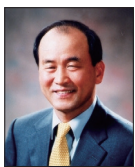
박기병(관리)

9월 20일 6.25참전연
론인회 제4대 회장에
연임됐으며, 11월 18
일 고향인 강원도에서
동곡상을 수상했다. 동
곡상은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이 제정
한 상으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 인사
에게 시상하고 있다.



김하일(관리)

이름을 신명(莘銘)으
로 개명했다. 어린 시
절에 이장이 동네 아
이들 출생신고를 대신
해주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바뀌 신고한 이름을 법원의 허
가를 얻어 원래의 이름을 되찾았다.



김강정(보도)

(사)선진사회만들기 공
동대표. 10월 6일 강구
형 명지대 교수를 초
청, '대한민국 현대사
를 어떻게 볼 것인가'



유무정(보도)

9월 24일 인천상륙작
전의 X레이작전 지휘
관이었던 김순기 옹,
김요한 전 육군참모총
장 등과 함께 인천 월

임채헌 국장님을 추모하며



이재은(보도)

향년 74세 아까운
나이에 임채헌 국장님은 떠나셨습니다.

드높은 파아란 하늘
국화꽃 향기 짙은
이 가을, 님은 가셨
습니다. 지난 여름
그 덥고 더운 나날
모두 이겨내시고

되는 날은 버마의 독립운동가 아웅산
의 묘소를 참배하기로 돼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 대통령이 숙소에서
출발했고 서석준 부총리 등 수행원들
과 경호원들은 행사 예행연습을 하고
나서 참배 장소에 도열했습니다. 임채
헌 선배님과 저는 촬영할 위치에 서
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선배님은 카
메라, 저는 레코더를 메고 있었습니
다. 시간이 임박하여 대통령이 탄 차
가 들어오는 장면이 필요할 것 같아
한두 걸음 떼는 순간,

팡!!! 고막이 찢어지는 굉음과
천장이 치솟는 모습은 마치 건설현장
기공식 때 발파하는 모습과 흡사했습
니다. 아비규환! 이 폭발로 수행원 17
명 사망, 10여명 중경상, 긴 건물의 가

운데 부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큰 묘지가 반 토막이 났습니다. 불과
몇 초, 한 순간에 삶과 죽음이 엇갈렸



습니다. 임 선배님은 폭발음이 터지
는 순간에도 셔터에서 손을 떼지 않
고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선배님의 투철한 기자정신이었습니
다. 그리고 이 영상은 세계적인 특종
이 되었습니다. 총무로 영화계에서 출
발하여 MBC 카메라기자로 활약한 임

선배님은 타고 난 영상저널리스트로
혼신을 다 바쳐 열정적으로, 신명나
게 카메라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셨
습니다. MBC 근무 25년간 뉴스는 물
론 다큐멘터리 '아시아 하이웨이를 달
린다' '세계적 희귀종 저어새' 등을 촬
영하여 특종상, 공로상 등 많은 상도
받으셨습니다. 영상편집부장, 카메라
부장, 특집영상부장, 부국장을 하시며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제 임 선배님의 온화하고 인자하
셨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려 합니
다. 평소 그렇게 건강하셨는데...심장
이식 후 10년간 그렇게 잘 견뎌내셨
는데...웃으며 훌쩍 우리 곁을 떠나셨
습니다. 편안히 영면하시어. 천국에서
만나 옛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화방송사우회

문화방송사우회
백내장 정밀 검진 및 수술비 지원 사업

- Ⅰ 사업대상 : 문화방송 사우회 회원 및 직계 가족
- Ⅰ 사업내용 : 백내장 정밀 검진 및 일반 백내장 수술비 사우회 전액 지원
- Ⅰ 신청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 Ⅰ 신청방법 : GS안과 대표번호 02-3469-0900
MBC 사우회 제휴 담당 전우형 실장 010-5042-3334
- Ⅰ 제휴안과 : GS안과의원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 미진프라자 8층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도보 10m 거리)



광고

續 MBC에
물어 물어 이야기

‘인간시대’ 그리고 윤동혁

민 용 기 (편제)

I.

1985년 6월 어느 날, 전두환 대통령이 탑승한 자동차 행렬이 정동 MBC 사옥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의 업적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국민들과 학생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건 저 방송사들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 많아요. 방송의 국가정책홍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두 방송사 고위 책임자들은 아연 긴장한다.

II.

1985년 6월 25일. 문공부 Y매체국장이 KBS 방송본부장(윤혁기)과 MBC 제작이사를 호출한다. 두 방송 책임자는 매체국장의 밥이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두 사람을 불러들인다.

“국가정책홍보프로를 7월부터 편성해야 한다. 양 방송사가 주간 2회씩 방송한다. 단, 과감하게 프라임타임 8시 뒤에 편성한다” “인기프로그램 전 후에는 매일 두 번 이상 2-3분짜리 미니 정책프로를 심어야 한다”

또 시작이군! 두 사람은 매체국장의 일방적 얘기를 듣고 나서 벌레 썩은 표정으로 국장실을 나섰다. ‘이번은 그 강도가 만만치 않구나’

3일 후인 28일. 매체국장이 두 사람을 다시 호출한다.

“정책프로는 두 개의 KBS 채널과 MBC가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편성한다. 이 뜻은, 한 채널에서 정책프로를 방송할 때 상대 채널에서 오락프로를 편성하는 경우 정책프로의 시청률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오락프로는 정책프로 전후에 편성해 시청자의 시청을 유도한다. 이것 또한 정책프로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별 조치다”

구체적이다. 매체국장은 신임 장관 부임 후, 보스를 닮아서인지 말투도 더 강경해 간다. 정부 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종전에는 보기 드문 주문이다. 편성을 좀 안다는 사람이 아니면 생각해 낼 수 없는 ‘기발한’ 착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방송사가 편성하고 말고가 없었다. 이미 그려진 편성표를 Y국장이 두 사람에게 내밀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지난번, 그는 책상 밑에 몇 장짜리 차트를 숨기듯 내려놓고 가끔 힐끔

힐끔 내려 보면서 편성 방향을 얘기했다. 그도 받은 지 얼마 안돼서 미처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지 말고 그거 좀 내놓고 봅시다’ 하고 들여다봤더니 ‘안 된다’고 더 깊숙이 숨겨 버렸다. 매체국에서 작성해서 장관에게 보고된 것이라면 그렇게 겁먹은 표정으로 숨기려들지 않았을 텐데... 꽤 중요한 곳에서 내려 온 모양이라고 직감했다. 이 날 우리가 받은 편성지침서와 편성표는 바로 그 전 날 것의 복사 분이었다. 두 장짜리 서류 표지에는 ‘秘’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작성한 부서의 이름과 날자가 적혀있지 않았다. 매체국이 장관에, 문공부가 청와대에 정식 경로를 통해 보고한 서류라면 매체국 또는 문공부의 부서 이름이 제목 밑에 적힌다. 그것이 공무원 서류의 일반적인 관례다. 또 지금까지 받아 본 모든 청와대, 문공부의 공식서류는 공판 또는 타이프로 찍은 것이 상례다. 이 서류는 누군가 직접 육필로 쓰고 편성표를 그린 A4용지 두 배의 작은 브리핑 차트였다. 두 페이지로 된 그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TV政策프로그램 補強計劃
(基本方向)

■ 政策프로그램 ‘띠’를 多視聽 時間帶에 設定

- 週中 政策企劃프로 2回 固定編成
- 1~2분 程度의 미니 政策프로를 每日 2回 以上 放映.

■ 政策프로 前,後 時間帶에 재미있는 프로를 編成하여 政策프로 視聽 強化 誘導.

■ 既存 教養 啓導프로도 좋은 時間帶로 移設 編成.

(政策프로 編成方案)

(例示) (이하 편성표 생략)

(施行時期)

■ KBS-1.2TV : 85. 7. 8 (月)부터

■ MBC-TV : 85. 7. 15 (月)부터

이 계획은 의도한대로 어김없이 시행된다. 정기적인 편성지침은 방송사의 의견을 듣고 약간 수정되기도 하는데 이번은 워낙 서슬이 퍼래서 그런 걸 엄두도 못 낸다. 그려 준 편성표에서 시간만 약간 수정하고 7.8시 띠 황금시간에 정책성 교양프로가 편성된다. MBC는 월요일 ‘현장85 여기’라는 르포 프로를, 금요일 ‘MBC리포트’를 편성 방송한다. 물론 지정한대로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KBS1. 2도 비슷한 시간에 편성돼 7월8일부터 방송했다. 이 황당한 사건은 기자들 눈에는 띄지 못했다. 아니면 취재하고도 보도를 자제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단지 어느 한 신문이 “TV편성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응 편성이 이번 교양프로 개편에도 그대로 드러났다.”(중앙일보 85. 7. 15)고 꼬집었다. 그냥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다.

해가 바뀌면서 정책홍보프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약간 느슨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으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 때 MBC는 ‘묘안’을 생각해낸다. 정책시간 띠에 차라리 60분짜리 다큐멘터리 프로 ‘인간시대’를 밀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인간시대에 정책홍보내용을 잠재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정부 측을 끈질기게 설득한다. 설득이라기보다는 ‘감언이설’이었는지 모른다. ‘인간시대’는 시작인지 몇 개월밖에 안된 신생프로였다. 심야시간 때 편성으로 시청자의 주목을 아직 받지 못했다. 존재감이 없었다. MBC는 뜻밖으로



‘인간시대’를 정책시간에 옮기는데 성공한다. 천만 다행이었다. 아니면 다큐프로인 ‘인간시대’가 황금시간에 편성된다는 것은 언감생심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위장 정책프로 ‘인간시대’는 그렇게 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III.

방송에서 처음 ‘자연 다큐멘터리’의 불을 당긴 것은 MBC다.

1982년 어느 날, 이윤희 사장이 강릉MBC로 출장 가는 길이었다. 무료하게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문득 그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길가에 수도 없이 피어있는 야생화다. 무심히 내다보던 그는 그 원초적 아름다움, 그 풀뿌리 생명력, 그 한국적 순박성과 순수함에 취한 듯 ‘바로 이것이다’고 뭔가를 떠올렸다. 회사에 돌아오자 그는 야생화의 한국적 매력을 역설한다. 권재홍 기자가 나섰다. 그

는 1년 간 전국의 야산을 헤매고 다니며 한국에 자생하고 있는 모든 야생화의 생태를 추적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다큐멘터리 ‘한국 야생화의 4계’가 그렇게 탄생됐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방송대상 장관상을 수상한다. 상이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방송소재의 영역을 넓힌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듀서들을 자극한다. ‘한국의 나비’, ‘한국의 새’, ‘삼다도 물 속 4계절’, ‘한국의 물고기’ ‘갯벌은 살아있다’(1994,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장덕수PD) 등으로 이어지고, 타 방송사에도 자연 다큐멘터리제작을 촉발시킨다.

IV.

1984년 6월, 교양프로와 다큐멘터리를 전담할 교양제작국이 TV제작국에서 분리, 신설된다. 자연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을 얻은 회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우선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사내에서 외부에서. 새 부서답게 의욕은 대단했다. 할 일은 산처럼 밀려왔다. PD들은 밀려오는 프로그램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턱없이 모자라고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이라 팀웍이 크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차인태의 출발 새아침’이란 프로그램이 있었다. 50분짜리 매일 아침 생방송 되는 생활정보 프로였다. 신설교제작국은 여기에 승부를 거는 듯, 종전의 스튜디오 위주에서 이 프로를 야외촬영으로 전환한다. 야외촬영은 당연히 품이 많이 든다. 의욕은 좋지만 사람들이 부족했다. 한 사람의 PD와 한 사람의 AD가 하루 방송분을 메워나가기로 한다. 인원은 더 공급되지 않았다. 새 부서라 기본 장비인 ENG 카메라와 편집기도 제때 차례에 돌아오지 않았다. 낮에 취재 밤에 편집. 편집기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꼬박 밤샘하는 것을 다반사로 할 수밖에 없었다. 새벽에 간신히 편집을 끝내기가 무섭게 50분간의 생방송으로 긴장한다. 방송을 끝내면 피로에 찬 물골로 해장국 먹고 근처 목욕탕에서 잠깐 눈 부치고 다시 취재에 나서는 강행군이 계속된다. 집에는 일주일에 한번 꼴로 옷 갈아입으려고 들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기혼자는 멀쩡하게 집에 앉아있는 사람 생과부 만들기 일쑤다. 하긴 국내외 출장이 가장 잦은 다큐멘터리 팀에야 비기랴만. 용케 이혼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같은 50분 짜리 ‘뉴스데스크’는 시사적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국뽕이 달라붙는 것과 비교하면 환경이 너무 취약하다. 미국의 ‘Today’, ‘Good morning, America’, 일본의 ‘모닝쇼’ 등 유사프로에 3~40명의 인원이 대거 투입되는 것과 비교하면 수공업적이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당시 PD들은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있었다. 생방송프로에 일 년 정도 투입돼 제작 훈련을 쌓으면 탈진할 때쯤 되어 대망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도전할 기회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까닭이다.

V.

일 년 후 1985년 봄 개편, 한 시간짜리 정기 다큐멘터리가 편성된다. ‘인간시대’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간 자신이다. 이 너무나 당연하고 명확한 명제를 우리는 잊고 있다. 우리 주변 인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웃고 울고 분노하는가. 인간을 다룬다는 일에 이의는 없다. 모두 동의했다. 제작팀은 5명.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편 제작. 팀장은 이금희였다. 프로듀서 시스템이 처음 제대로 구성된 것이다. 우리나라 방송여건에서는 일종의 사치였다. 5월23일, 목요일 밤 10시45분, 첫 프로가 방송된다. 김윤영 PD의 ‘청계천에서 세계로-삼보컴퓨터 사장 이윤기씨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홍성완 PD의 ‘소리, 종소리가 들린다-종장인 김종일씨’, 세 번째 이야기, 신언훈 PD의 ‘옥장인 장주원’에 이어 이금희 팀장의 ‘이것 보여요? 안과의사 이상욱 박사’, 윤동혁 PD의 ‘날개 달린 쇠지팡이-설악동 산악안내인 오오섭씨’이 계속 이어졌다.

새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대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

첫째, 처음부터 눈을 확 끌면서 힘있게 나가는 경우, 이것은 나중에 잘 뻗을 수도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뒷감당이 쉽지 않다. 초기의 페이스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다. 그래도 PD들은 첫 날부터 시선집중을 원한다. 첫 인상이 좋아야 그 이미지가 길게 갈 뿐 아니라, 일단 그래야 위로부터 잔소리를 면할 수도 있다. PD들이 사전 PR과 예고방송에 매달리는 것이 그 까닭이다. 하지만 잔뜩 기대치를 높였다 실망시키면 이것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다음은, 처음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다 그냥 주저 않는 프로

도 많지만 횡수가 거듭되면서 팽팽히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야 보증수표다. 좀 생각이 깊은 친구들은,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첫 프로 방송 시 PR을 일부러 피하는 모험을 하기도 한다. 성에 차지 않던 것이 나중에 서서히 상승하면 그 후는 탄탄대로다. 매일 방송되는 연속드라마가 이 가능성이 높다. 재미있고 좋은 프로는 예고안 해도 웅케 시청자들이 찾아든다.

‘인간시대’는 후자에 속하는 편이다. 초기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사내 평가에서 ‘가능성은 있으나 두고 보자’했다. 밤 11시 가까운 시간 편성이라, 편성에서 특집방송을 빙자해서 자주 방송이 취소되기도 했다. 그래서 맥이 자주 끊긴다. 거의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겨우 여섯 번째 이야기가 간신히 방송된다.

VI.

‘범화골 진영이 엄마-서울근교의 농군 김택분여사’

‘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네!’ 방송을 본 PD들이 모두 주목했다. 뭐,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진영이 엄마는 8살 난 딸아이의 엄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보통 시골 아낙이다. 소박하고 평범한 진영이 엄마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농군 생활을 담담하게 쫓고 있을 뿐이다. 연출자가 뭘 유별나게 주장하지도 강조하지도 않는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꾸미지 않고 담담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따라간다. 카메라도 일부러 좋은 그림 잡으려고 애쓰는 흔적이 없다. 오히려 기본에서 벗어나는 거친 그림 투성이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신선했다. 평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을 지배했다.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감정 표출과 표정들이 너무나 솔직하고 친숙했다. 화면 속의 사람들은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카메라와 조명이 비치면 긴장하고 굳어지는 일반 출연자들에 익숙해진 시청자에게 이것은 새로운 감동이었다. 그 담백함에 압도당했다. 저런 생생한 모양을 어떻게 잡아냈을까. 조명이 비치고 카메라가 돌아가면 그들도 당연히 긴장하고 경계한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마세요. 보통 때처럼 행동하세요’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없다. 윤동혁 PD와 이영삼 카메라는 멀리 돌아가기로 한다. 처음 며칠간의 촬영을 포기한다. 진영이네와 좁은 방에서 24시간 생활한다.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소주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는 일상생활을 그들과 함

께 한다. 카메라는 물론 밤낮없이 요란하게 돌아간다. 하지만 테이프는 없다. 며칠 지나면 조명과 카메라가 일상화된다. 농사 일, 집안일도 바쁜데 일일이 카메라 신경 쓰는 것이 귀찮아 진다. 그 때부터 그들은 가식과 긴장과 경계의 허울을 벗어버린다. 이때 비로소 카메라에 테이프를 넣는다. 정치인, 지식인, 저명인사, 잘 사는 사람들 보다 가난하고 순수한 밑바닥 사람들이 이 허울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훨씬 빠르다. 그렇게 해서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담는데 성공한 것이다. 새로 시도된 제작기술이다. 이 기법은 그 후의 ‘인간시대’의 하나의 전형을 이룬다. 차가운 브라운관에 진솔한 사람 냄새를 심기 시작한 것이다. 불우하고 가난하지만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드라마보다 더 진한 감동을 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실로 ‘위대한’ 발견이었다.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에도 급속히 확산되었고, 우리나라 휴먼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는 효시가 됐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II.

윤동혁 PD는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방송담당 기자로 MBC를 출입했다.

방송사 출입 기자들이 밝는 순서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 신문사는 견습을 막마친 햇병아리 문화부기자들을 우선 방송에 출입시킨다. 그들은 방송이 첫 출입처이고 방송엔 거의 까막눈이다. 그들은 당연히 호기심 많고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도 진지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든다. 높은 분들, PD들, 내로라하는 탤런트, 연예인들이 그들을 상전 모시듯 한다고 착각한다. 그 때부터 말투가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지 않으면 취재원 접근이 어렵다는 걸 스스로 믿게 되고, 선배기자들도 그렇게 충고한다. 그때부터 기사나 비평을 마감에 쫓긴다는 핑계로 쉽게 쉽게 갈겨 쓰기 시작한다. 그렇게 PD들이나 출연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기자 기피증을 자초한다. 5년 10년을 두고 봐도 그 패턴은 요지부동이다.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다. 대개 큰 신문사 기자들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윤동혁이었다. 그는 솔직하고 진지했다. 자연히



여의도에서 많은 PD친구들을 만나고 가까워진다. PD들이 아예 방송 일을 같이 하자고 꼬이기도 한다. 처음엔 ‘어렵겠는 소리’ 했으나 몇 년 지나면 서윤 기자도 솔깃해진다.

교양제작국이 신설되면서 그는 프로듀서로 스카우트되고 7년간 공들인 기자생활을 접는다. 서른세 살의 늦은 나이에 방송으로 전환한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겪는 방송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게다가 다큐멘터리 파트의 경쟁의식은 겉보기와는 달리 불꽃을 튀겼다. 공동작업과 팀워크가 생명인 드라마나 연예 쪽과는 달리, 홀로 뛰고 작업하는 속성상 배타성이 남 달랐다. 공채사원이 아닌 스카우트 PD들은 물론이려니와 같은 방송사 라디오 출신 PD들조차 처음에는 받아드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AD생활을 거치지 않은 그들에게 아무도 방송 제작의 기초적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다. 윤동혁은 얼마 후 독한 마음을 먹는다. PD에서 AD로 강등시켜 달라고 자청한다. 신입사원처럼 일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의 나이 이미 30대 후반, 기자로서는 이미 시니어다. 말이 쉽지 사람이 할 일 아니었다. 3개월에 걸친 늦깎이 AD 생활의 수모와 좌절을 그는 이를 악물고 묵묵히 버텨낸다.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PD로 다시 돌아온 그는 비로소 뚝뚝하게 ‘인간시대’를 만난다.

VIII.

앞서 말한 대로, ‘인간시대’는 방송시간이 11시 심야시간에서 8시 프라임 타임, 이른바 ‘정책시간’때로 시간을 옮겼다. 제작PD들도 신바람이 났다. ‘인간시대’는 날개를 단 셈이었다. 회를 거듭하면서 서민들의 인생은 시청자의 가슴을 울리고, 삶의 보람을 찾아주고, 텔레비전을 보는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급기야 다큐멘터리 ‘인간시대’는 드라마 ‘전원일기’와 쌍벽을 이루면서 MBC의 간판프로로 부각된다. 아니 ‘국민프로그램’으로 부상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많은 상을 휩쓴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연출상을 여러 차례, 한국비평가협회상, 방송위원회상을 비롯해서 시민 사회단체가 주는 무수한 상을 받았다. 1991년, 삼성재단이 마련한 호암상 제1회 언론상을 수상한 것은 특히 돋보인다. 국내 최고의 상금으로 관심을 모은 이 상에서 TV프로그램이 종이매체 언론을 제치고 그 첫 수상의 영광을 안은 것이다. 특히 팀장 이금희의 공로가 크다. 그의 열정적인 지도력과 창의력

이 돋보였다. 그는 SBS 개국 당시 부장에서 제작국장 자리를 제안 받는다. 그는 MBC를 버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10여년 후 그는 MBC 대표 자리에 오른다. 자사 PD출신 최초의 사장이다. 게다가, 사장 선출이 공모제로 바뀌고 나서 사원 추천으로 선출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인간시대'는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ABU 아세아 방송연맹상을 다섯 차례나 수상하는 기록을 세운다. '인간시대'는 장장 7년 여간 총 290회를 방송하고 1991년 9월 2일 막을 내린다. '인간시대'의 제작에 참여한 모든 PD와 AD, 작가, 카메라맨과 스태프들은 다시 한 번 찬사와 경의를 받아 마땅하다.

IX.

윤동혁은 1990년 MBC를 떠난다. 거대한 조직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다. 안전하고 넉넉한 동지를 떠나 새로운 다큐멘터리 세계로 뛴 날고 싶었다. 해외 취재에서 가끔 만나는 선진국의 프리랜서들..시간

과 돈과 고독과 온갖 역경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세계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외로운 늑대들', 그들의 정열과 희열, 자유분방함이 부러웠다. 그는 우리나라 프리랜서, 개인 프로듀서의 길을 열고 싶었다. 아직은 사치였다. 먼 훗날의 꿈일 뿐이다. 그는 좌절한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팽개쳐야 하는 고통은 프로듀서의 자유 이전의 원초적 문제였다.

1992년, SBS가 출발한다. 그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두 번째 조직 속 PD생활에 적응해 나간다. 1995년, 그는 자연 다큐멘터리 '버섯-그 천의 얼굴'로 한국방송대상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연출상을 수상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다큐멘터리-게' '한국의 패류' '몽골행단 2천4백km' '김치를 아십니까' '선암사의 비밀' 등으로 다큐PD로서의 실력을 공인받고 신생 방송사의 이미지를 높인다. 그는 부장으로 승진한다. 그의 고민이 시작된다. 간부승진은 현장이탈을 의미한다. 데스크보다 끝까지 현장에 남고 싶은 PD들은

이 대목이 갈림길이다. 간부직을 마다하고 전문직 PD로 남는 일엔 많은 정신적, 현실적 불이익과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다. SBS 윤세영 회장이 간곡히 만류한다. '6개월간 특별 휴가를 주겠다. 일본 전국을 마음껏 누비고 다녀와라. 경비는 대겠다' 일본은 그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그는 몇날 며칠을 번민한다. 집에서도 받아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더 나이 들면 떠나지도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자신이 즐기며 일하는 것' 그게 자유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1998년 11월 그는 SBS를 떠난다. 그리고 '푸른 별 영상'이라는 독립 프로덕션을 차려 스스로 광야의 가시밭길로 들어간다. 그의 나이 47세. 그는 임버릇처럼 '나의 주 관심사는 자연 다큐멘터리,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지체장애자들'이라고 말해 왔다. 그렇지

만 우리나라 독립프로덕션 풍토는 아직 프로듀서가 선호하는 주제만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먼 길이다. 그는 늘 방송사에서 주문하는 프로그램에 매달리느라 눈코 뜰 새 없다.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는 점으로 스스로 기획한 자연다큐멘터리에 도전한다. '서울, 달터공원 버섯이야기'다. 방송사의 가혹한 제작비, 저작권도 인정 못받고, '그저 밥이나 얻어먹는 마당쇠 신세'로 전락했음을 재확인한 작업에 실망한다. 그래도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의 성공여부가 곧 우리나라 개인 프로덕션의 시금석일수도 있다는 선구자의 책임감도 있다. 그는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은퇴할 때 10년을 공들여 만들었다고 자부할만한 작품 하나는 남겨라"

"세계시장을 겨냥해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라."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다큐멘터리가 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날이 언제일까 기대해 본다.

친구의 초대, 즐겁지 아니한가 - 메단(인도네시아) 여행기



이 원 형 (업무)

여행!

3년간의 일본 유학시절과 1년간의 필리핀 연구 생활은 논외로 친다고 해도, 스스로 역마살을 느

낄 정도로 많은 출장과 여행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행'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하물며 여행지의 나라에서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친구가 10명이 넘는 고교동창들을 초청한 여행이라면...

여행한 나라는 인도네시아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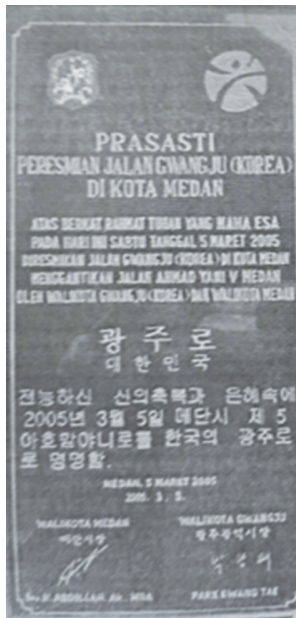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정교한 문화와 숭고한 지혜를 즐길 수 있는 곳, 인도네시아"가 그 나라의 관광슬로건. 나라 전체의 이미지는 더운 나라로 오랜 농경문화의 유산으로 느껴지는 느긋함과 무슬림국가다운 순수함. 연초에 방문했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첫 인상은 1970년대의 우리나라 그대로였다. 개발도상국이 겪는 인구 도시집중과 거기 따르는 교통지옥,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건설 중인 새로운 빌딩들이 눈에 띄었다. 아직 지하철이 없는 자카르타에서 자동차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교통체증을 그린캄이라는 오토바이부대가 해

결하고 있었다. 기후조건과 생활수준은 필리핀과 비슷했으나 사람들의 표정과 언행은 좀 더 순수하게 느껴진다. 종교의 영향인지 유흥가를 거의 보지 못했고 맥주보다 높은 도수의 술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여행한 도시는 메단(Medan)시

자카르타, 수라바야에 이어 인도네시아 세 번째 대도시인 메단시는 수마트라섬 북쪽에 위치한 인구 350만 명의 상업도시로 부근의 곡창에서 나오는 고무, 담배, 차, 야자유 등 농산물 수출이 주된 수입원이다.

특기할 일은, 우리나라 광주광역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인데, 이 자매결연 맺은 지 20년이 되고 자매결연 기념으로 명명한 「광주로」가 변화기의 한 길



에 자리하고 있었다. 자매결연은 우리를 초청한 바로 그 친구가 성사시켰다고 하며, 그 친구는 메단시에 로얄 수마트라라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덕분에 우리는 이른바 '황제골프'도 즐겼다.

여행의 핵심은 토바(Toba) 호수

메단시에서 남쪽으로 서너 시간, 차선도 없는 좁은 길을 안전벨트도 없는 관광버스가 아슬아슬한 경주를 하듯 달려가면 이번 여행의 핵심 토바호수가 나온다.

북부 수마트라주의 서편과 중심부를 지나는 해발 2000m가 넘는 산맥과 산맥 사이에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토바호수가 있다. 약 7만년 전 대형 화산이 폭발해 생겼다는 이 호수의 크기는 남북 100km, 동서 34km라니.. 호수라고 해야 하나, 바다라고 해야 하나?

호수로 내려가는 산맥의 1500고지에서 내려다본 토바호수는 '탁 트여서 아름답고, 당당하여 아름답고, 그윽하여 아름답고, 고요하여 아름답다'는 어느 여행기 위에 어린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매, 히잡을 쓴 여인들의 수줍은 모습까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호수 안에 있는 시모시르(Simosir)섬에서 일박을 했는데 이틀간의 토바호수 여행만으로도 인도

네시아 여행의 참맛을 만끽했다고 할 수 있다.

여행의 낙수(落穗)

고등학교 동창들의 여행이므로 구성원의 대부분은 화려한 백수.

대학교수로 정년을 한 친구는 '우리 지역의 대학교수들이 정년을 하면서 아까운 전공서적을 많이 버리는데 그 책들만 잘 모아도 지역사회와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토로했고,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한 친구는 '요즘 젊은이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무문제해결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행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험이거나 구경이 만이 아니라, 동행하는 친구들과의 의견교환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직 개발도상국이지만 교통신호의 파란불 일 때는 물론, 빨간불에도 남은 시간을 체크해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발전해 있다는 발견 등등은 함께 여행한 친구들과 주운 이삭이라고 나 할까!!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공자의 말씀에서 감히 한 글자를 고친다.

有朋自遠方 招 不亦樂乎.

안나푸르나 서킷 트레킹記



류근종 (관리)

머릿속으로만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지워버린 경우가 무릇 기하인가? 여행을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가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을 때 비행기표부터 예매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방콕을 경유해서 네팔 카트만두로 가는 항공권을 우선 구매한 다음, 안나푸르나 서킷 트레킹을 위한 자료조사를 했다. 그리고 항공권의 일정대로 금년 1월 5일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비행기의 창문으로 히말라야의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보이자 마음은 설레고 잠시 후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다시 국내선을 타고 이번 여행의 베이스캠프 격인 포카라로 갔다. 여기서 하루 묵으면서 입산 허가서와 TIMS(트레커 정보 관리 시스템) 카드를 발급받고 가이드와 포터를 구하고 환전을 하고, 지도와 비상약품 등 트레킹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

안나푸르나 서킷 트레킹은 안나푸르나의 남동쪽에 있는 마을 베시사하르(해발 760m)를 출발해 안나푸르나 산군을 왼쪽에 두고 돌레길을 걷듯 일주하는 코스로 안나푸르나의 남서쪽에 있는 마을 베니(830m)에서 마친다. 반대방향으로 하기도 하며 다른 수많은 조합으로 코스구성이 가능하다. 기간은 20일 이상 소요된다. 나는 이 코스에 안나푸르나 남쪽 베이스캠프(4130m, 이하 'ABC')로 이어지는 코스를 추가하는 반면, 일부 구간은 지프나 버스로 이동하여 시간을 단축

함으로써 총 20일 일정으로 계획을 짰다. **1월 7일 아침**, 포카라에서 지프를 타고 베시사하르로 가서 다시 지프를 갈아타고 탈(1700m)까지 이동했다. 이튿날 아침 트레킹을 시작하니 길옆에 쌓은 돌담, 나무를 엮어 세운 울타리, 경사가 급한 산비탈과 여기에 실금처럼 나있는 조붓한 길, 그 길을 느릿느릿 일렬로 걷는 소떼, 동네 어귀에 있는 초르텐,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모든 풍경이 새롭고 가슴이 벅찼다. **트레킹 5일째**, 가루(3670m)에 도착하여 차 한 잔을 시켜 놓고 앞을 바라보니, 왼쪽부터 안나푸르나Ⅱ,



Ⅳ, Ⅲ, 강가푸르나 그리고 오른쪽 저 멀리 툴리초까지 해발 7000m를 넘는 봉우리들이 연이어 장성처럼 늘어선 모습에 그 아래로 마르샤디 강이 스스로 물길을 내어 흐르고 있다. 장관이다. 집들은 돌을 다듬어 만든 벽돌로 벽을 세웠고 지붕은 평평하다. 집집마다 세운 색색의 룡다가 지붕 너머 거대한 설산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다. 규모가 큰 오래되고 아름다운 초르텐이 마을 한가운데 있어 중심을 잡아준다. 주변 산비탈을 밭으로 일구었고 마을은 자연의 일부인 듯 어울려 섞여 있다. **트레킹 6일째**, 마낭(3540m)에서 하루 휴식을 했다. 여유 있게 마

을 주변을 둘러보며 고도 적응을 했다. 해발 3000m를 전후하여 사람에게 따라 고산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도를 서서히 높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 안나푸르나 서킷 트레킹은 하루 6~9시간 정도의 구간을 쉬엄쉬엄 걷는데, 험한 길을 등산하는 게 아니므로 청계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고도 적응, 추위, 날씨 변화, 음식, 잠자리, 씻기, 세탁, 화장실 등 낯설고 불편한 환경에서 장시간 지내야하므로 이에 대한 내성은 강해야 좋다.

트레킹 9일째, 새벽 로지를 출발하여 오전 9시경 드디어 쏘롱라(5416m) 패스에 도착했다. 너무 춥다. 손이 면장갑을 끼고 그 위에 스키장갑을 껴는데도 시렸다. 엄청난 바람과 추위에 이번 트레킹의 최고점을 통과하는 기분을 만끽할 겨를도 없이 인증용 사진 몇 장을 찍고는 서둘러 묵티나트(3760m)로 하산했다. 묵티나트의 사원에서 지금까지의 일정이 순탄한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올렸다. 묵티나트에서 하루를 더 묵으며 휴식을 했다. 우리가 묵은 숙소는 자메이카의 싱어송라이터인 밥 말리를 주제로 꾸며져 있는데, 인테리어도 느낌이 있고 음식 맛도 훌륭해서 하루를 빈둥거리기에 아주 괜찮았다. 안나푸르나 서킷 트레킹은 대부분의 구간이 현지인들이 생활하는 길과 마을을 이용하게 된다.

1~2시간 거리마다 마을이 있고, 여기에 로지라고 하는 숙소 겸 식당들이 있어 차 마시고 식사하고 잠자는 데 불편은 없다. 전 세계에서 오는 트레커들을 상대하므로 메뉴가 다양하고, 맛도 괜찮은 편이다. 숙소에는 개인별 침대에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대부분의 트레커가 각자 가져온 침낭을 사용하므로 이불은 요청할 때만 준다. **트레킹 11일째**, 묵티나트에서 한나절 거리에 있는 까그베니(2810m)에서 묵었다. 티벳풍이 물씬 나는, 트레커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의 마을이다. 칼리간다키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뻗어 내려온 거대한 산등성이가 첩첩이 겹쳐있는데 원근에 따른 농담차이가 아름답다. **트레킹 12일째**, 점심 무렵 쏘롬(2720m)에 도착했다. 쏘롬의 가장자리 전망 좋은 곳에 MBC로고가 선명한 건물이 보인다. 회사가 지원하여 이곳에 방송사 건물을 짓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다음 날 현지 버스를 타고 따포파니(1190m)에 도착해 숙소를 잡고 마을에 있는 노천 온천을 즐겼다. **트레킹 15일째**, 푼힐 전망대(3193m)에 올라 안나푸르나 산군과 다울라기리 산군의 파노라마를 조망하며, 눈을 이고 있는 거대한 봉우리들의 끝부터 붉게 물들어 내려오는 일출을 감상했다. **트레킹 18일째**, ABC에 도착했다. 이튿날 아침, 잔뜩 끼어있던 구름이 걷히면서 안나푸르나(8091m)가 모습을 드러냈다. 커다란 새가 날개를 짝 펴고 서있는 듯한 모양으로 좌우 균형이 잘 잡힌 게 위용이 당당하다. 눈 덮인 안나푸르나에 강한 햇살이 비치니 하늘은 더욱 짙푸르다.

튼튼한 폐로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한 깨달음

줄어만 가는 폐포(肺泡) 살려 추가 생명 30년 얻는 비방(秘方)!

폐를 지키는 것이 건강한 공덕을 짓는 것

이 책의 저자, 편강한의원 서효석 대표원장은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단연 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으뜸이라 말한다. 폐가 망가지는 3가지 형태가 바로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화다. 죽음은 나이가 들수록 다가오는데, 폐와 심장이 먼저 망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폐렴이 찾아와 숨이 멈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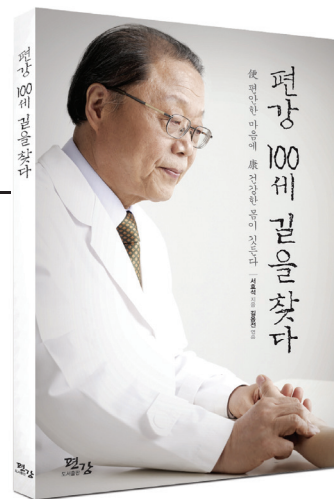
편도가 튼튼해지면 변비는 줄어든다

저자는 유년시절 편도선염을 자주 앓았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41년의 외길 연구 끝에 청폐(淸肺) 한약을 개발해 지금까지 끊임없이 효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저자의 치료원리는 간단하다. 폐 건강의 바로미터인 편도선을 튼튼하게 가꾸어 어떠한 유해 물질도 인체를 침범할 수 없도록 지키는 천하의 명장으로 키우는 것이다. 편도가 건강해 튼튼한 임

파구들을 배출하면 외부에서 침투하는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자비의 마음으로 건강을 전하다

저자가 지향하는 100세는 아픈 100세가 아니라 편안하고 건강한 활력 넘치는 100세다. 그는 그동안 치료된 수만 명의 피부 질환 및 호흡기 질환자를 통해 경험한 생생한 치료 사례를 <편강 100세 길을 찾다>에서 가감 없이 펼쳐 놓는다.



편강 100세 길을 찾다

서효석 지음 | 도서출판 편강

청폐 문의 : 02-797-9999